



쿠바 미사일이 남긴 교훈



노운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1962년 10월의 마지막 2주처럼 역사상 핵전쟁 발발 위기가 높았던 적은 없었다. 따라서, 국제정치를 진지하게 이해하려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미소 두 강대국이 어떻게 핵전쟁의 벼랑 끝으로 갔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발길을 되돌릴 수 있었는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소련은 왜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을까?
 ② 미국은 왜 쿠바를 해상봉쇄로 대응했을까? ③ 소련의 핵미사일 철수와 미국의 해상봉쇄는 과연 최상의 전략적 결정이었을까?

탈냉전 이후 백악관 회의 내용을 포함해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방대한 사료가 현재 알려져 있고, 소련 붕괴 후 관련 자료들의 비밀이 해제 되어있기 때문에 양측의 판단을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다.

1961년 미국 CIA가 훈련한 쿠바 난민 침공(피그만 사건)이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 소련은 미국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쿠바를 잃는다면 중남미에서 자국의 위신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했기에 쿠바의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 수상 니키타 흐루쇼프는 1962년 2월 공산당 최고간부회의에서 쿠바에 대한 대규모 군사원조를 발표했고, 이 군사원조에는 SA-2 지대공 미사일도 포함되었다. 미국의 쿠바침공 역지가 목적이라면 소련이 굳이 핵미사일을 배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문이었다. 소련이 약간의 지상군만 파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필시 미국을 향한 공격이 목적이란 생각되었다.

소련은 1961년 6월 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서 흐루쇼프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1961년 말까지 서베를린 주둔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그러나 케네디는 이 회담 이후 서베를린 주둔 미군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대응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쿠바보다 서베를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흐루쇼프가 쿠바 미사일 철수와 서베를린 주둔 미군 철수를 서로 교환하기로 생각했던 것이었다.

1962년 10월 16일 미국 정보당국은 케네디에게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케네디는 즉시 NSC 최고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소련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미국이 포함된 것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미국이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외교 압박으로 UN이나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가 미사일 철수를 위한 협상을 주장하자는 의견, 그리고 미국의 밀사를 쿠바에 보내 미사일을 소련으로 반송토록 요구하고 거절될 경우 가공할만한 미국의 공격으로 쿠바를 초토화하겠다는 압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군 수뇌부는 삼군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5일 안에 쿠바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서 소련은 결코 미국과의 핵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흘간 계속된 NSC 전략회의는 갑론을박 끝에 쿠바를 해상봉쇄하기로 했고, 이를 즉시 소련에 알렸다.

1962년 10월 28일 소련은 결국 쿠바의 핵미

사일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달성했기에 미국 외교의 승리였다. 그러나, 소련이 핵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분명치 않았다. 흐루쇼프가 미사일 철수를 결정한 것은 미 해군의 봉쇄 때문이 아니라 추가적인 위협 때문임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다.

1950년대 말 소련은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에 미국도 NATO의 최전선인 터키에 미사일과 핵무장이 가능한 F-100 전폭기를 배치했다. 그런데 쿠바 미사일 때문에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면 소련이 서베를린을 침략하고, 터키에 배치된 미사일을 보복 타격하면 NATO의 EDP(긴급방위계획)와 QRA(신속대응태세) 절차에 따라 세계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케네디의 고뇌는 컸다.

다행히 1962년 10월 흐루쇼프가 쿠바 미사일을 소련으로 철수하겠다고 서신을 케네디에게 보냈으나, 그날 오후 해피한 일이 발생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층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건이 일어났다.

소련의 핵실험에 따른 대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알래스카에서 출격해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U-2기가 실수로 소련 영공을 잠시 침입해 소련 전투기가 출격한 것이다. 당시 소련의 미그 전투기는 핵무장을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U-2기는 무사히 기지로 귀환했다.

흐루쇼프는 케네디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이 전투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소련 전투기가 U-2기를 핵폭격기로 오인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면서 케네디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사실 1962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케네디는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961년의 피그만 사건과 소련 영공에서의 U-2기 격추로 흐루쇼프와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었던 때에 소련의 무기가 다량으로 쿠바에 해상 수송되고 있었다.

7월부터 무기 수송이 늘어나 8월에는 수송선이 37척으로 늘어났고, 9월에는 중거리 미사일, MIG-21 전투기, IL-28 폭격기 등이 포함되었으며, 5,000명의 소련 기술자, 군사 요원도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정적들이 쿠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케네디는 온건한 노선을 유지했으며, 쿠바의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공언하고 있던 중 10월 16일의 긴급보고(U-2기가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었음을 확인)를 받은 대통령의 반응은 경악과 분노 그 자

체였다.

케네디는 1961년 빈 정상회담에서 흐루쇼프에게 자신이 우유부단하며 결단성이 없는 인물로 보였다는 언론의 혹평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단연코 흐루쇼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다.

케네디는 NSC 참모들의 많은 의견을 경청한 다음 “어떤 경우에도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러나 소련의 무모한 쿠바 미사일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해상봉쇄를 단행토록 군 수뇌에 명령했다.

기업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 조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예리한 판단과 과감한 결정적 행위가 요구된다.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다.

쿠바 핵미사일 위기를 맞아 NSC 위원을 포함한 14명(이 중에는 전직 국무장관 애치슨, 대통령 후보였던 스티븐슨도 참석)의 전문가들과 4일간 계속된 토론을 거친 케네디는 끈질긴 인내심과 열정, 그리고 흐루쇼프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긴박했던 핵전쟁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 **KMIF**